

12

December 2025
vol. 296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Happy Holiday!



Cartier

Hermès, drawing on your mind



PRADA
FINE JEWELRY
COULEUR VIVANTE

/ Warmth
was never about
the outside /



Warmer Together
With Al Pacino & Robert De Niro



Contents

- 09_ **BLACK DIGNITY** 시대를 초월하는 컬러, '블랙'의 품격과 카리스마를 담다.
- 10_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1_ **SELECTION** 화려한 골드 디테일, 분위기를 더하는 워치 & 주얼리까지. 연말 모임을 더욱 빛내줄 글램 무드의 파티 룩.
- 12_ **PERFECT CHOICE** 워치와 주얼리 제작에 탁월한 노하우를 지닌 매종 까르띠에를 관통하는 철학과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 데클라라시옹 오 드 퍼품을 소개한다.
- 16_ **INFINITELY SHINE**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아이코닉 프리미어로 워치와 정제된 디자인으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최대로 끌어올린 이터널 N°5 주얼리를 만나다.
- 20_ **VISIONARY JOURNEYS SEOUL** 브랜드의 창조적 비전과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문화적 에너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응축한 공간, 루이 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Louis Vuitton Visionary Journeys Seoul)이 오픈한다.
- 22_ **WISH ME LUCK** 새해, 행운의 주얼리로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24



44



올해 까르띠에의 홀리데이 시즌 캠페인은 마술에 걸린 듯 아름다운 파리 휘드 라페 13번지의 밤을 배경으로 한다. 매종의 탄생지인 이부티크에서 까르띠에의 상징적인 동물 팬더가 베이비 팬더로 재탄생해 사랑스럽고 활기찬 매력을 드러낸다. 베이비 팬더 옆에 놓인, 새로운 산토스 드 까르띠에 티타늄 워치가 사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1877-4326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11



49

- 23_ **POETIC GARDEN** 동양의 문화와 미에 가치를 둔麒麟의 특별한 전시 〈미라클 가든(Miracle Garden)〉. 이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麒麟의 CEO, 크리스토프 아르토(Christophe Artaux)가 내한해 파인 주얼리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 24_ **A SEASON OF WONDERLAND GIFTS** 반짝이는 시간이 시작된다. 눈 내리는 산타 마을을 찾아온 연말 기프트 셀렉션.
- 44_ **천 가지 얼굴을 지닌 나라에서 만나는 '인들의 섬'**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으로는 열다섯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육해공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 브랜드 아만(Aman)의 리조트. 그중 지난 11월호에 실린 1편(아만와나-아만다라)에 이어 같은 섬(발라)에 있지만 저마다의 특색과 주변 환경이 다른 아만다라, 아만킬라, 아만 누사두아 빌라를 소개한다.
- 48_ **HOLIDAY BUBBLES** 경쾌하게 피어오르는 버블이 테이블 위에 환희를 채운다. 클래식한 퀴베부터 특별한 해를 담아낸 풍미까지, 연말의 기쁨을 더욱 빛내줄 샴페인.
- 49_ **FESTIVE ELEGANCE** 연말의 설렘을 배가해줄 감각적인 아이템, 촛불의 반짝임과 화려한 오브제로 완성한 겨울 테이블.
- 50_ **EDITOR'S PICK**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위한 스킨케어부터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는 캔들, 겨울 무드를 더하는 메이크업까지. 이달의 뷰티 리스트.

Black Dignity

시대를 초월하는 컬러, '블랙'의 품격과 카리스마를 담다.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오른쪽 위부터 차례대로) 불가리 옥토 로마 블랙 DLC 및 샌드 블랙스트 처리한 블랙 컬러가 돋보이는 스틸 케이스. 직경 42mm 사이즈에 다이얼과 3개의 스물 세컨드 창까지 블랙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핸즈와 아워마커는 슈퍼루미노바®로 마무리해 가독성을 높인 크로노그래프 기능의 워치 1천4백20만원. 문의 02-2056-0170

파네라이 루미노르 마리나 아이코닉한 루미노르 케이스와 크라운 프로텍터를 갖춘 44mm 사이즈 모델. 블랙 샌드위치 다이얼과 슈퍼루미노바®로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한다. 오토매틱 무브먼트 P.980으로 구동한다. 1천2백47만원. 문의 02-2118-6256

브레게 클래식 5177 직경 38mm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블랙 그랑 피 에나멜 다이얼과 브레게 뉴머럴 인덱스, 핸즈가 어우러진 우아한 드레스 워치. 플루티드 케이스 밴드와 웰디드 러그 등 브레게 클래식 컬렉션의 정수를 보여준다. 4천만원대. 문의 02-6905-3571

IWC 인제니어 오토매틱 42 케이스, 베젤, 케이스 백 모두 블랙 산화지코늄 세라믹으로 제작해 진정한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무드를 자아낸다. 작은 선과 사각형의 그리드 구조가 특징인 블랙 컬러 다이얼을 장착했으며, 자체 제작 82110 칼리버로 구동한다. 2천8백20만원. 문의 1877-4315

위블로 빅뱅 20주년 기념 울 블랙 빅뱅 탄생 20주년을 맞아 선보인 울 블랙 버전의 새로운 빅뱅 모델로 직경 43mm 블랙 세라믹 케이스에 독특한 패턴의 다이얼과 인덱스, 핸즈까지 블랙으로 완성해 위엄을 자랑한다. 3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에거 르물트르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가로세로 27.4×45.6mm 사이즈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과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한 아이코닉한 워치 컬렉션. 아슬라게 인덱스를 매치해 타임리스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선사한다. 3천5백20만원. 문의 1877-4201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직경 42mm 케이스와 브레이슬릿까지 전체를 블랙 세라믹으로 제작한 일체형 디자인으로, 블랙 컬러에서 우러나오는 세련미를 뽐낸다. 칼리버 4404로 구동한다. 1억3천3백38만원. 문의 02-543-2999 에디터 성정민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Party, Please!

은은한 광채로 연말 모임 룩에 포인트를 더하는 홀리데이 파티 백 4.

(위부터 차례대로) 실버 크리스탈 장식으로 홀리데이 룩에 포인트를 주는 메이키메이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문의 02-6905-3795, 벨벳 소재에 크리스탈, 비즈 장식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레이미 주얼 미니 플라워 스트라스 버클 클러치 백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문의 02-3448-0442, 시그니처 포스트맨즈 룩과 스트랩의 금속 장식 디테일이 특징인 엘바리 미니 알렉사 2백만원대 **엘바리**, 문의 02-2018-1439, 체인 숄더 스트랩으로 크로스 보드 또는 숄더백으로 연출 가능한 실버 크리스탈 미니 백 86만원대 **셀프 포트레이트**, 문의 02-6911-0836,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Watches & Jewels • 이달에 주목해야 할 워치 & 주얼리 셀렉션



Lucky Horse 2012년부터 매년 중국 12기지를 모티브로 한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를 내놓는 피아제에서 2026년을 기념하는 일타플라노 조디악 '말의 해' 에디션을 출시한다. 피아제 공방에서 장인의 손으로 직접 인그레이빙한 생동감 넘치는 말의 모습이 인상적. 직경 41mm에 두께가 단 2.5mm에 불과한 830P 칼리버로 구동한다. 문의 1877-4275



Holiday Express 토즈가 2025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T 타임리스 쇼퍼 백을 부드러운 램 스킨과 풍성한 퍼 소재의 미니 사이즈로 새롭게 선보인다. 클래식한 실루엣에 퍼 트림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T 모터베 메탈 디테일과 여유 있는 수납공간 및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특징이다. 4백70만원. 문의 02-3438-6008



Icon in Blue 펜다가 2026 S/S 프리 컬렉션에서 새로운 맘마 백을 선보였다. 블루 데님에 FF 모노그램을 더해 독창적인 텍스처를 구현했으며, 다크 블루 가죽 인서트와 골드 톤 FF 클래스프가 세련된 포인트를 전한다. 미디엄·스몰 사이즈, 탈착 가능한 핸들과 스트랩으로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스몰 3백만원대. 문의 02-544-1925



Like a Teddy Bear 몽클레르의 테디 캡슐 컬렉션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라인으로, 겨울을 위한 보온성과 복속복술한 텍스처가 특징인 테디 소재로 전개한다. 아우터는 남녀 모두 여러 디자인으로 선보이는데, 스탠드컬라 재킷은 테디 소재의 포근한 질감과 플딩 디테일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우아함을 강조했다. 문의 0030-8321-0794

Color Magician

프라다는 파인 주얼리에서 미우치아 프라다와 라프 시몬스만의 정교인 구조미와 예측 불가능한 컬러 조합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에미시스트, 아카데미, 마테이라 시트린, 핑크 모가나이트, 오로베르데 페리드트 등은 프라다 컬러 스펙트럼의 기준에 맞게 선별한 컬러 켈스톤으로 전통적인 주얼리에 대한 인식을 깨는 디자인으로 완성된다. 주얼리 역시 유쾌하며 세련된 방식으로 풀어내는 프라다 파인 주얼리.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다. 문의 02-3442-1831



Wish for Diamonds

진귀한 다이아몬드와 켈스톤으로 겨울의 찬란함을 찬미하는 그라프 'I Wish' 홀리데이 캠페인. 캠페인을 구성하는 클래식한 다이아몬드 라인, 매혹적인 파인 주얼리와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홀리데이 시즌 소중한 이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완벽한 선물이 되어준다. 그라프의 모든 작품은 지난 65년간 하우스를 지탱해온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헌신으로 완성했다. 그중에서도 오로지 다이아몬드로 리본을 형상화한 네크리스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해 데일리라는 물론 특별한 기념일에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다. 문의 0030-8321-0441



Time to Celebrate!

미국 나파 밸리의 프리미엄 와인 생태계에서 '조셉 펠프스(Joseph Phelps Vineyards)'는 많은 업자와 컬렉터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적인 이름이다. 1960년대 나파 밸리에서 일어난 와인 붐을 계기로 세계에 발을 들였다가 1974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첫 와인을 내놓았고, 이로써 캘리포니아 최초의 보르도 스타일 블렌드와 자리매김한 '인시그니아(Insignia)'가 탄생해냈다. 카베르네 소비뇽을 중심으로 블렌딩되는 인시그니아는 일관된 품질과 세련미를 지속해오며 '성공한 업적을 기리는 표시'를 뜻하는 명칭이나 이미지를 쌓아왔다. 나파 밸리 테루아의 정수를 섬세하게 담아내면서도 해마다 자연이 선사하는 개성을 신중하게 반영한다는 평을 듣는다. 매년 10월 인시그니아의 새로운 빈티지를 선보이는데, 올해 나온 인시그니아 빈티지 2022는 온화한 생장기와 양조 과정, 그리고 정교한 블렌딩을 통해 특유의 풍격과 정제미를 극대화한 작품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진홍빛 색조의 와인인 나파 밸리 테루아의 복잡미묘한 우아함을 품고 있다. 잘 익은 베리 풍모드와 울스파이스의 아로마, 코코아와 갓 로스팅한 에스프레소의 풍성한 향으로 시작해, 에코브 드 프로방스와 절인 담팻잎의 미묘한 뉴앙스를 드러내며, 카디엄과 육두구의 향신료 풍미가 과실의 생동감을 북돋운다. 그리고 정제된 타닌과 따스한 질감이 어우러지는 긴 파니시로 마무리되는데, 바로 즐겨도 우아하지만, 장기 숙성을 거치면 한층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글 **고성연**

에디터 신영민 스타일리스트 임혜영

사표한라펠이 돋보이는 더블 브레스티드 라메 자카드 텍시드 제킷 5백90만원대 **툴레앤가바나**.



Selection

반짝이는 텍스처와 화려한 골드 디테일, 분위기를 더하는 워치 & 주얼리까지. 연말 모임을 더욱 빛내줄 글램 무드의 파티 룩.

PHOTOGRAPHED BY **CHOIMINYOUNG, YOONJIYOUNG**



18K 옐로 골드에 화이트·핑크 골드, 화이트 세라미아 손목에 포인트를 더해줄 콰트로 화이트 에디션 밴그 6백만원대 **부쉐론**.



다이아몬드와 머더오브펠의 광채가 아름다운 뽀뽀 올루 이어스터드 3백60만원 **키린**.



상세한 여아이어 디테일로 하트 실루엣을 완성한 에디션 콰트로 화이트 161만원 **이자벨 마랑**.



케이스와 다이얼을 총 1,12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포르토포피노 오토매틱 37 2천9백40만원 **IWC**.

우디와 아로마틱한 향이 조화를 이루는 Moncler Pour Homme 오드 파르페 150ml 24만17천원 **몽클레르**.



툴레앤가바나 02-3442-6888 **파인 주얼리** 080-805-9628 **포멜라토** 0030-8321-0441 **프라다** 02-3442-1831 **무헤** www.mu-he.com **케어링 아이웨어** 02-517-6060 **이자벨 마랑** 02-516-3377 **에트르** 02-3446-1321 **키린** 02-6905-3453 **부쉐론** 02-6905-3322 **로저 비비에** 02-6905-3370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IWC** 1877-4315 **몽클레르** 0030-8321-0794



반투명한 렌즈 실루엣과 골드 포인트 안경테가 조화를 이루는 선글라스 2백만원대 **까르띠에 by 케어링 아이웨어**.

헤어에 포인트가 되어줄 메탈 헤어클립 가격 미정 **프라다**.



플로럴 페이즐리 프린트가 우아한 롱 슬리브 벨벳 드레스 4백32만원 **에트르**.



약 7캐럿의 루벨라이트 원석과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는 누도 하이 주얼리 루벨라이트 링 가격 미정 **포멜라토**.

블루 컬러와 유쾌한 곡선 실루엣이 돋보이는 클러스 화방 14만원 **진원 무헤**.



블랙에 나뭇가지 골드 톤 디테일이 포인트인 로퍼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은은하게 빛나는 새틴 소재의 펄그림 버클 클러치 골드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Perfect Choice

위치와 주얼리 제작에 탁월한 노하우를 지닌 메종 까르띠에. 또 다른 카테고리인 백과 향수를 제작할 때 역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크리에이션을 선보인다. 단순히 제품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감정까지 불어넣기에 가능한 일. 까르띠에를 관통하는 철학과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과 데클라라시옹 오 드 퍼퓸을 소개한다.



1

주얼 백의 정수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은 2021년 첫선을 보였 다. 유려하게 흐르는 곡선 실루엣은 팬더의 유 연한 몸과 닮았고, 딱 떨어지는 정교함은 팬더 의 날렵함을 담았다. 그 중에서도 까르띠에는 주얼리의 상징인 잠금장치에 공을 들였다. 동물 의 생동감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C 형태로 완성 한 것. 한쪽 끝은 팬더의 얼굴을 디테일하게 조 각해 팬더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을 연상시키 며 백이지만 주얼리적 요소와 감성을 녹여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 은 2003년 다이얼 양쪽을 링으로 장식한 까르 띠에 데클라라시옹 위치에서 영감받았다. 클래 식하고 우아한 세이프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레

인 가죽 손잡이에 유려한 물결 형태의 메탈 링 을 겹겹이 쌓듯 장착해 특별함을 부여했다. 이 29개의 움직이는 링은 미끄러지며 경쾌한 소리 를 내고, 손잡이에 빛을 더하며 주얼 백으로서 진정한 매력을 뽐아낸다. 팬더 형태 잠금장치는 대담한 골드와 블랙 에나멜 스트라이프로 완 성해 더욱 볼드해졌으며 손잡이의 링들과 자연 스럽게 대비되어 동물적 생동감을 극대화한다. 매끄러운 송아지 가죽, 건축적인 실루엣과 골드 의 볼드함이 어우러져 유니크한 매력을 선사하 는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은 그저 하나의 백이 아닌, 작품과도 같은 가치를 선사하며 진정한 주얼 백의 정수를 보여준다.

3



4

1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의 모던함을 잘 보여주는 화보 이미지. © Denis Boulze © Cartier
2 파충류를 연상시키는 링이 달린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의 손잡이 디자인. © Mattia Parodi © Cartier
3 주얼 백의 정수를 보여주는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 © Mattia Parodi © Cartier
4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의 모티브가 된 까르띠에 데클라라시옹 위치. © Cartier

2





또 하나의 감각적 여정

까르띠에만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체는 향수다. 조향사 마틸드 로랑(Mathilde Laurent)이 재해석한 데클라라시옹 오 드 퍼퓸은 오리지널 데클라라시옹이 지닌 스파이시 우디 계열의 대담함에 따뜻하고 크림미한 숨결을 더한다. 정향과 생강이 주는 생동감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열정의 불꽃처럼 강렬하면서도 섬세하다. 장-클로드 엘레나(Jean-Claude Ellena)의 초기 창작물이 지닌 투명한 구조를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차이 라테를 떠올리게 하는 포근함과 달콤함이 향에 새로운 감정을 입힌다. 까르띠에는 이 강렬한 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앰버 톤의 새로운 보틀을 적용했다. 이 보틀은 불꽃이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한 듯 따뜻한 빛을 품어, 향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생동감을 시각적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까르띠에의 환경 친화적 약속에 따라 데클라라시옹 보틀의 유리 무게를 줄여 새롭게 디자인했으며 오 드 퍼퓸, 오 드 투왈렛, 퍼퓸 모두 리필 가능하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정민



1 까르띠에 데클라라시옹 오 드 퍼퓸에 쓰인 향조와 연출된 사진. © Cartier

2 (왼쪽부터) 까르띠에 데클라라시옹 오 드 퍼퓸, 오 드 투왈렛, 퍼퓸. © Cartier © Kate Jackling

3 까르띠에 데클라라시옹 오 드 퍼퓸 100ml 21만2천원. © Cartier © Kate Jackling

(위부터) 데클라라시옹 오 드 퍼퓸 100ml 21만2천원, 데클라라시옹 오 드 투왈렛 100ml 17만원 모두 **까르띠에**. © Cartier © Kate Jackling

가브리엘 샤넬이 선보인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정신을 계승하며 아이코닉한 향수를 재해석한 이터널 N°5 주얼리 컬렉션. 다이아몬드로 숫자 5와 향수의 드롭 디테일을 표현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이터널 N°5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 밴드부터 중앙의 숫자 5 까지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수놓은 이터널 N°5 링,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볼드하게 담은 이터널 N°5 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Infinitely Shine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아이코닉 프리미에르 위치와 정제된 디자인으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이터널 N°5 주얼리를 만나다. 고요하게 또 우아하게, 샤넬 고유의 미학으로 황홀한 존재감을 부여하는 순간.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블랙 래커 다이얼, 샤넬 패션 하우스의 상징과도 같은 체인과 블랙 레더 조합의 더블 스트랩으로 강렬한 오라를 전하는 프리미에르 아이코닉 체인 더블 로우 위치 가격 미정 **샤넬 워치**. 문의 080-805-9628



파리 방돔 광장에서 영감받은 직경 19.7mm 팔각형 케이스에 레드 래커 다이얼과 벨벳으로 감싼 레드 러버 스트랩을 매치한 프리미에르 리본 레드 워치, 직경 19.7mm 스틸 케이스, 모던한 블랙 래커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베젤에 벨벳으로 감싼 블랙 러버 스트랩을 더한 프리미에르 리본 워치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워치, 문의 080-805-9628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숫자 5에 N°5 향수 방울을 형상화한 다이아몬드 드롭 장식을 더해 조형적 리듬감을 자아내는 이터널 N°5 이어링, 일정한 간격으로 다이아몬드를 배치한 네크리스 중앙에 다이아몬드 숫자 5와 드롭 디테일 펜던트가 찬란한 광채를 발산하는 드롭 이터널 N°5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에디터 김하얀



Visionary Journeys Seoul

유산과 혁신, 전통과 미래가 교차하는 순간. 루이 비통이 서울에서 또 하나의 상징적 장을 연다. 브랜드의 창조적 비전과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문화적 에너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응축한 공간, 루이 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 (Louis Vuitton Visionary Journeys Seoul)이 오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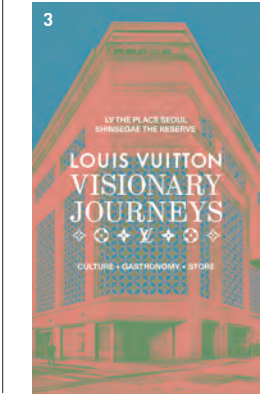


글로벌 럭셔리 하우스 루이 비통의 역사는 1854년 창립자 루이 비통이 제작한 여행용 트렁크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독창적 디자인을 구현하며 '여행의 예술(Art of Travel)'을 완성해왔으며, 더 나아가 레디투웨어, 워치, 주얼리, 레더 굿즈, 뷰티, 향수 등 다방면으로 세계관을 확장해왔다. 그리고 그 여정은 1984년 루이 비통이 서울에 첫 매장을 오픈하면서 역동적인 대한민국 서울과 만나게 된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 고유성과 국제성이 정교하게 얹힌 도시로, 하우스가 지향해온 '여행의 예술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루이 비통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협업을 통해 도시의 역동성과 전통적 아름다움에서 끊임없는 영감을 받았으며, 한국이라는 문화적 토양과 고유한 케미스트리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하우스의 정신과 고유의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2025년 11월의 끝자락, 또 하나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인다. 명동 중심부에 위치한 LV 더 플레이스 서울, 신세계 더 리저브(LV The Place Seoul, Shinsegae The Reserve)에 오픈하는 루이 비통 비저

너리 저니 서울(Louis Vuitton Visionary Journeys Seoul)이 그 주인공이다. 명동은 서울에서도 혁신과 헤리티지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다. 1930년 한국 최초의 백화점인 '미즈코시 백화점'이 명동에 들어서면서 외국 문화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즉 명동은 단순한 쇼핑 거리가 아닌 한국의 현대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왔던 것. 비저너리 저니 서울은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루이 비통 매장이다. 무려 4,900㎡에 달하는 공간을 루이 비통은 한 부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총 6개 층에 걸쳐 수직적으로 전개되는 이 공간에서는 단순히 매장뿐 아니라 문화 체험형 공간 '루이 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Louis Vuitton Visionary Journeys Seoul)', 그리고 미식의 세계를 담은 '르 카페 루이 비통(Le Café Louis Vuitton)', '르 쇼콜라 막심 프레데릭 앳 루이 비통(Le Chocolat Maxime Frédéric At Louis Vuitton)', '제이피 앳 루이 비통(JP at Louis Vuitton)'이 한데 어우러져 여행을 매개로 예술, 패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낸다.



1 건물을 관통하는 한지로 만든 조명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2 모노그램 패턴을 재해석한 루이 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의 와벽 파사드. 3 루이 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 키 비주얼. 4 문화 체험형 공간 비저너리 저니 서울이 시작되는 1층. 루이 비통 핫 박스로 둘러싸여 웅장함을 자랑한다. 5 하우스의 탄생부터 역사적 순간을 담은 '기원' 룸. 6 루이 비통 하우스 위치의 역사를 담은 '워치' 룸. 7 자동차용 트렁크와 피크닉 박스가 등장한 순간을 담은 '피크닉' 룸.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적인 건축·디자인 집단이 참여했다. 1층 입구와 4층, 5층의 전시 공간 디자인은 'OMA'가, 4층 카페 디자인은 '두 아키텍처(Doo Architecture)'가, 6층 레스토랑은 '휴고 토로(Hugo Toro)'가 담당했다. 곳곳에는 한국의 전통미를 상징하는 디자인적 요소를 녹여냈다. 고려청자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창경궁의 유서 깊은 담에서 영감받아 모노그램 패턴을 재해석한 건물 외벽 파사드부터 한국 전통 건축의 '육각 문양'에서 모티브를 얻은 정교한 목조 패턴의 천장, 한국 전통 창호 문 디자인인 복과 행운을 뜻하는 만자문, 안경과 화합, 번영을 뜻하는 정치문의 기하학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VIC 룸의 문까지. 그뿐 아니라 2백 점 이상의 작품과 하우스 아카이브, 국내외 예술 작품을 통해 한국의 미에 루이 비통의 정체성과 헤리티지를 융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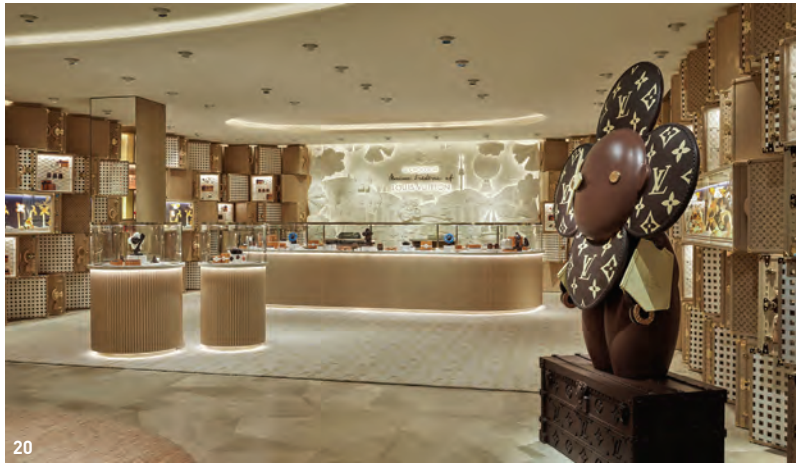
Inside the Journey

각 층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루이 비통이 이해하는 '문화적 여행'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장소로 기획됐다. 1층 여성 레더 굿즈, 뷰티, 액세서리 그리고 워치&주얼리 공간에서 시작해 2층에서는 여성 레더 제품과 레디투웨어, 슈즈 컬렉션을 선보이며, 3층에서는 남성 레디투웨어, 트래블 그리고 액세서리 등을 전개한다. 2층과 3층 사이에는 이현정 작가의 작품 'Contemplation'을 설치해 시간, 기억, 정체성을 탐구하며 공간의 정서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느끼도록 이끈다. 4층부터는 루이 비통이 전개하는 확장된 라이프스타일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4층에는 루이 비통 기프트와 홈 컬렉션, 그리고 '르 카페 루이 비통'과 파리, 뉴욕,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등 전 세계 단 네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르 쇼콜라 막심 프레데릭 앳 루이 비통'이 자리한다. 5층에서 4층으로 이어지는 공간에는 루이 비통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형 공간을 다채로이 이야기와 장인 정신을 담아 하나의 별자리처럼 펼쳐낸다. 이 공간에서는 최초의 플랫 트렁크부터 현대적인 아이코논 물론, 맞춤 제작, 워치, 패션, 음악에 이르기까지 루이 비통이 걸어온 여정을 한눈에 보여준다. 비저너리 저니는 1층의 부아프 보뜨(Boite Chapeau, 햇 박스)로 둘러싸인 터널형의 '트렁크스케이프(Trunkscape)' 룸에서 시작된다. 무려 2백49개의 실제 햇 박스로 루이 비통의 헤리티지와 웅장함을 표현한다. 5층으로 가면 '기원(Origins)' 룸부터 하우스의 역사적인 순간과 진화를 담은 공간을 만나볼 수 있다. '기원' 룸에서는 말 그대로 루이 비통의 기원이자 시초가 된 과거 트렁크들을 시간순으로 보여준다. 첫 트렁크의 탄생부터 모노그램 캔버스로 완성한 트렁크,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점차 견고해진 트렁크의 모습 등 역사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온 트렁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워치(Watch)' 룸에서는 1909년 메종이 등록한 첫 워치, 스타 클락을 시작으로 현재 명부르 워치까지 이어지는 루이 비통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피크닉(Picnic)' 룸에서는 20세기 초 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야외 피크닉 문화에서 영감받은 피크닉 트렁크와 도자기, 은식기, 유리 제품 등으로 꾸민 공간을 만날 수 있으며, '맞춤 제작(Personalisation)' 룸에서는 루이 비통이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제작한 수많은 트렁크 견본을 볼 수 있다. 그 뒤로는 아나에르 공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방(Workshop)' 룸, 하우스 제품의 품질을 담당하는 내구성 테스트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테스트(Testing)' 룸, 니콜라 제스키에르(Nicolas Ghesquière)부터 페렐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까지, 하우스 유산에 각자 고유의 흔적을 남긴 아티스트 디렉터의 비전을 담은 '아이코논(Icons)' 룸, 1896년 탄생한 이래 모노그램의 기원을 되짚는 '모노그램(Monogram)' 룸이 이어진다. 이후 루이 비통과 떼놓을 수 없는 음악과의 연관성을 담은 '음악(Music)' 룸,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부터 버질 아블로(Virgil Abloh),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hi) 등 아티스트와 협업해 선보인 제품을 전시해둔 '협업(Collaboration)' 룸, 루이 비통을 거쳐 간 아티스트 디렉터들의 대표 컬렉션 룩을 전시한 '패션(Fashion)' 룸에서 체험이 끝난다. 이 체험형 공간은 OMA의 쇼헤이 시게마츠(Shohei Shigematsu)가 패션계 큐레이터들과 협업해 구성했다. 기술, 예술, 역사, 혁신을 해부하듯 보여주는 이 공간을 모두 방문하고 나면 루이 비통의 DNA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Toward Extraordinary Taste

문화 체험형 공간이 끝나는 4층에 위치한 '르 쇼콜라 막심 프레데릭 앳 루이 비통'과 '르 카페 루이 비통' 역시 지나칠 수 없는 공간이다. 특히 파리, 뉴욕,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전 세계 단 네 곳에서만 경험할 수



8 루이 비통 트렁크의 맞춤 제작 역사를 보여주는 '맞춤 제작' 룸. 9 파리 공방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 10 내구성 테스트를 재현한 '테스트' 룸. 11 각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의 비전을 담은 '아이코논' 룸. 12 모노그램의 기원을 되짚는 '모노그램' 룸. 13 하우스와 음악의 관계성을 모아둔 '음악' 룸. 14 한국의 박서보 작가부터 무라카미 다카시 등 협업으로 완성한 가방과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전시해둔 '협업' 룸. 15 루이 비통을 거쳐 간 아티스트 디렉터들의 컬렉션을 모은 '패션' 룸. 16 루이 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 가제를 쓴 듯한 모습의 비바인 오브제. 17 6층에 위치한 제이피 앳 루이 비통. 18 4층에 위치한 르 카페 루이 비통. 19 이번 오픈을 기념해 출시한 익스클루시브 아이템을 모아둔 기프트 섹션. 20 르 쇼콜라 막심 프레데릭 앳 루이 비통.



있는 '르 쇼콜라 막심 프레데릭 앳 루이 비통'에서는 블루를 포인트로 한 '블루 비비안(Blue Vivienne)' 초콜릿을 비롯해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고급 초콜릿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르 카페 루이 비통'에서는 2025년 세계 최고의 패이스트리 셰프로서 선정된 막심 프레데릭(Maxime Frédéric)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아래 섬세한 패이스트리와 프랑스 전통에 한국적 감성을 더한 바리스타 메뉴를 선보인다. 대표 메뉴로는 오브제 노마드(Objets Nomades)가 디자인한 익스클루시브 스탠드 위에 올린 미니처 저니 시그너처 앙트레메(Miniature Signature Entremets)가 있으며, 초콜릿 모노그램(Chocolate Monogram), 티라미수 몬테나폴레오네(Tiramisu Montepulciano), 바닐라 드림(Vanilla Dream), 헤이즐넛 플라워(Hazelnut Flower), 스트로베리 샬롯(Strawberry Charlotte), 그리고 고무마 페틀라(Goguma Petula)뿐 아니라 두 가지 익스클루시브 한국 스타일 메뉴까지 선보인다. 이 메뉴들은 카페의 시그너처 음료인 체스트넛 캐라멜 아이스 라테(Chestnut Caramel Iced Latte)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루이 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의 여정을 완성하는 6층 레스토랑 '제이피 앳 루이 비통'에서는 뉴욕의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아토믹스(Atomix)로 잘 알려진 셰프 박정현의 미식을 선보인다. 이는 루이 비통의 첫 한국 출신 셰프 레스토랑이다. 훌륭한 요리를 따듯한 사프란 톤의 컨스텔레이션(Constellation) 테이블웨어에 담아 제공할 예정이며, 방문객은 완벽한 페어링되고 풍미 가득한 메뉴로 구성된 5코스 헤리티지 테이스팅 메뉴(Heritage Tasting Menu)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메뉴에는 부드러운 달걀찜과 함께 제공하는 간장게장(Soy Sauce Marinated Blue Crab, Smooth Egg Custard)이 포함되며, 서러된 해물 요리를 떠올리게 하는 섬세한 감칠맛을 선사한다. 또 한국식 겨자와 고추장으로 풍미를 더한 보다 대담한 구성의 랍스터(Lobster, Mustard, Gochujang Sauce)는 조화로운 매운맛과 감미를 더한다. 이어 비트와 갈비 소스를 곁들인 한우 안심(Hanwoo Tenderloin, Beetroot, Galbi Sauce)이 한식의 진한 풍미를 강조한다. 마지막은 장인의 손길로 만든 쌀 아이스크림과 감귤 소르베 위에 은은한 막걸리 폼(Rice Ice Cream, Tangerine Sorbet, Macheoli Foam)을 올린 디저트 등으로 상쾌하고 달콤하게 마무리되며, 정성스럽게 구성한 메뉴를 우아하게 완성한다. '제이피 앳 루이 비통'은 1월 오픈 예정이다.

Special Exclusive Collection

'LV 더 플레이스 서울, 신세계 더 리저브'의 탄생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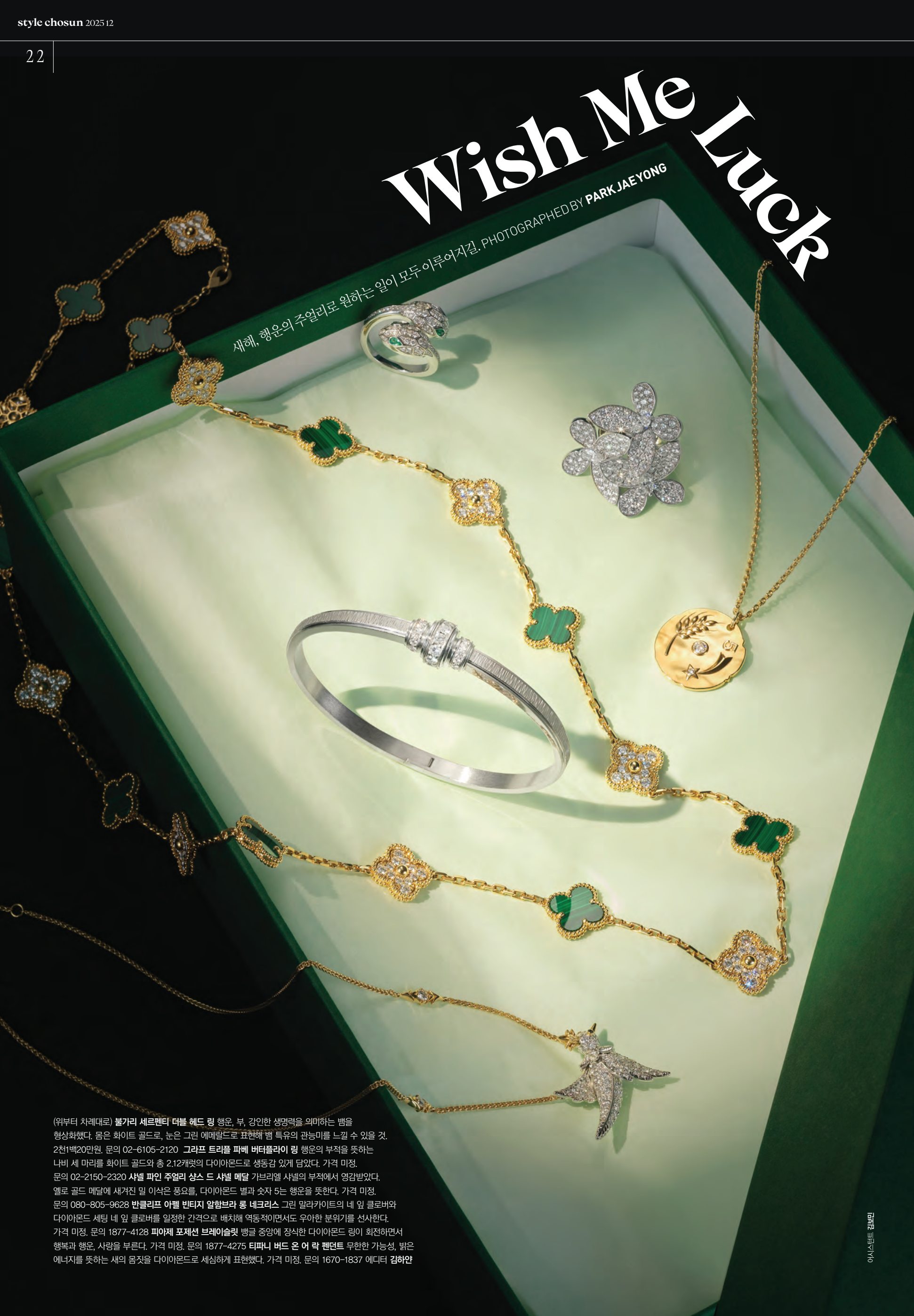


념하며 루이 비통은 이곳에서만 선보이는 루이 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을 출시했다. 루이 비통의 시그너처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캡슐 컬렉션이다. 복주머니, 버선, 한복, 오방색, 비즈, 연, 호랑이, 진돗개 등 한국적 상징과 루이 비통의 코드를 정교하게 교차시킨 이 컬렉션은 루이 비통의 아이코닉한 제품인 올 인 BB(All in BB)부터 '나노 노에(Nano Noé)' 백, 모노그램 패턴의 브러시드 울 카디건, 스피디 P9(Speedy P9)' 등으로 출시해 소장 가치를 드높였다. 루이 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의 문화 체험형 공간과 카페, 초콜릿 룸, 그리고 레스토랑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루이 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도시와 브랜드가 서로를 통해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문화적 약속이다. 이곳에서 서울은 루이 비통의 미래를 비추고, 루이 비통은 서울의 감각을 세계로 확장할 것이다. 문의 02-3432-1854 에디터 성정민

운영 월~목 10:30~20:00, 금·일 & 공휴일 10:30~20:30
제이피 앳 루이 비통 월~일 11:30~22:00(백화점 휴무일 제외)
주조 LV 더 플레이스 서울, 신세계 더 리저브 서울시 중구 소공로 63

문화 체험 공간





(위부터 차례대로) 불가리 세르펜티 더블 헤드 링 행운, 부,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뱀을 형상화했다. 몸은 화이트 골드로, 눈은 그린 에메랄드로 표현해 뱀 특유의 관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2천1백20만원. 문의 02-6105-2120 **그라프 트리플 파베 버터플라이 링** 행운의 부적을 뜻하는 나비 세 마리를 화이트 골드와 총 2.12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생동감 있게 담았다.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샤넬 파인 주얼리 상스 드 샤넬 메달** 가브리엘 샤넬의 부적에서 영감받았다. 옐로 골드 메달에 새겨진 밀 아삭은 풍요를, 다이아몬드 별과 숫자 5는 행운을 뜻한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반클리프 아펠 빈티지 알함브라 롱 네크리스** 그린 말라카이트의 네 잎 클로버와 다이아몬드 세팅 네 잎 클로버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피아제 포제션 브레이슬릿** 뱅클 중앙에 장식한 다이아몬드 링이 회전하면서 행복과 행운, 사랑을 부른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275 **티파니 버드 온 어 락 펜던트** 무한한 가능성, 밝은 에너지를 뜻하는 새의 몸짓을 다이아몬드로 세심하게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에디터 **김하얀**

아이스크림 김보민



Poetic Garden

동양의 문화와 미에 가치를 둔 키린이 특별한 전시를 선보였다. 이름하여 <미라클 가든(Miracle Garden)>. 서울 조선 팰리스의 전시 공간에서 키린의 주요 파인 주얼리 컬렉션은 물론 브랜드의 미학과 장인 정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 키린의 CEO, 크리스토프 아르토(Christophe Artaux)가 내한해 파인 주얼리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의 시선에서 바라본 키린의 본질과 비전, 그리고 파인 주얼리가 지닌 예술 작품 그 이상의 존재감과 가치를 알아본다.

Only For <Miracle Garden>

키린이 서울 조선 팰리스에서 프라이빗한 전시를 개최했다. 동양미를 모던하게 해석해 완성한 이 특별한 공간은 다채로운 파인 주얼리 컬렉션과 브랜드의 철학, 정교한 장인 정신을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키린의 대표 컬렉션인 울루 페어리(Wulu Fairy)·씨씨(Xi Xi)·진진(Qin Qin)·뱀부(Bamboo) 라인을 필두로 이번 해 새롭게 선보인 울루 타이 네크리스(Wulu Tie Necklace)는 브랜드만의 독창적 디자인을 담아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토록 진귀한 키린 주얼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공간에 펼쳐진 파인 주얼리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키린을 상징하는 레드 물결도 한몫했기 때문이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레드 컬러의 단상과 리드미컬한 울루 세이프의 대형 오브제에서 동양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배우 임윤아를 비롯해 아이들 미연, 에이티즈 홍중, 그리고 배우 기은세와 수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금로벌 엠베서더 배우 임윤아는 블랙 튜브 톱 드레스에 울루 타이 네크리스 및 드롭 이어링을 매치해 절제된 우아함을 보여줬는데, 키린 주얼리 고유의 기품을 표현하기에 완벽했다.

1 <미라클 가든> 전시는 신제품 울루 타이 네크리스를 비롯해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울루 라인, 자연에서 영감받은 파인 주얼리까지, 키린만의 독창적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2 울루 타이 네크리스를 착용한 키린 글로벌 브랜드 엠베서더 배우 임윤아의 모습. 3 키린 CEO, 크리스토프 아르토. 4 울루 페어리 컬렉션은 둔황 벽화 속 선녀의 유려한 춤사위에서 영감을 받아 빛을 머금은 듯 신비로운 광채가 특징이다. 5 진진 컬렉션은 풍요를 뜻하는 금봉어의 꼬리 디테일을 완성하기 위해 중국 전통 종이 오리기 기법을 사용하는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

interview

크리스토프 아르토
(Christophe Artaux, 키린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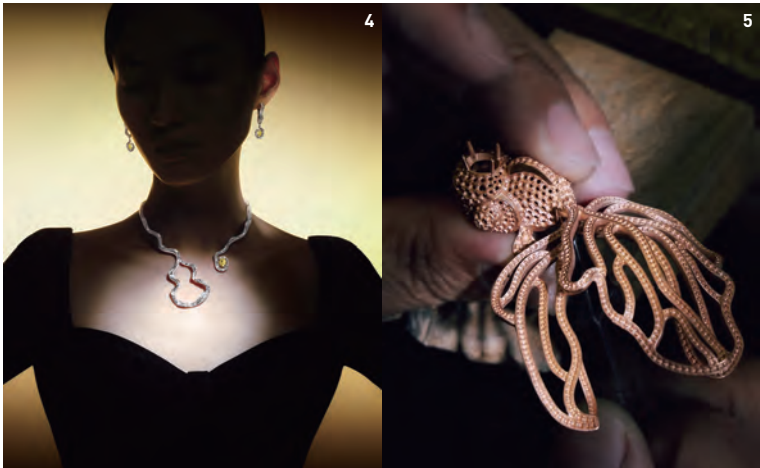
키린 파인 주얼리에 대한 정의를 묻는 질문에 “귀중한 원석과 자연을 품은 숭고한 디자인,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정교한 장인 정신과 기술력이 조화로운 아트 피스다”라며 브랜드와 주얼리에 대한 생각을 아낌없이 공유했다. 약 10년간 브랜드와 함께 성장해온 CEO로서 브랜드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SC(Style Chosun)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라클 가든>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것은. 키린의 <미라클 가든>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키린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데니스 찬(Dennis Chan)이 중국 둔황을 방문하면서 키린의 역사가 시작됐다. 당시 그가 동양 문화에서 받은 신선한 충격은 단단한 사명감으로 이어졌고, 브랜드의 방향성과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친다. 키린이 동양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전개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브랜드의 본질을 확정한 것으로 동양의 미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일종의 문화적, 예술적 시도이며 동양 문화를 향한 사명감을 키린만의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SC 식물, 동물 등 자연을 향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중이다. 자연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에서 파생된다고 생각한다. 키린은 자연유산에 대한 깊은 존중을 기반으로 창립했으며, 인공적인 부조화와 부자연스러움을 배제한다. 자연이 선사하는 유려하고 유기적인 실루엣은 그 자체로 순수한 예술과 같다. 식물과 동물, 신화적 생명체를 주얼리 디자인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고집하는 이유다. **SC** 키린은 동양의 미를 표방하며 중국 상서에 집중한다. 모든 컬렉션에 깃든 행복, 행운 등의 스토리텔링은 물론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롱박 모티프 역시 행운을 뜻한다. 행복, 기쁨, 행운에 집중하는 이유는, 중국 문



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이 바로 행운과 복이다. 동양 문화에 가치를 둔 브랜드인 만큼 행운과 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울루 컬렉션은 행운을 뜻하는 조롱박에서 영감받았으며, 보보 컬렉션의 판다는 평화와 우정을, 씨씨 컬렉션의 사자 모티프는 기쁨과 축하를 의미한다. 또 진진 컬렉션의 금봉어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 궁극적으로 키린 주얼리를 통해 세상에 좋은 기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다. **SC** 마지막으로 <스타일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트렌드에 민감하며 빠른 변화가 특징이다. 키린은 이에 맞춰 독자적인 스토리텔링과 포지셔닝에 차별점을 두고 한국 소비자의 반응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 과정 중 하나가 바로 배우 임윤아를 글로벌 브랜드 엠베서더로 발탁한 것이다. 배우 임윤아만큼 키린 고유의 현대적 동양미를 가장 잘 표현할 배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새로운 파인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 에디터 **김하얀**



문의 02-6905-3463

반짝이는 시간이 시작된다. 눈 내리는 산타 마을을 찾아온 연말 기프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A season of Wonderland Gifts



(왼쪽페이지) 우아한 타원형이 돋보이는
로즈 도금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주얼 워치다운 품격을 완성한 베누아
워치 가격 미정 **까르띠에** 1877-4326.
(오른쪽 페이지) 콜롬비아 무조
광산에서 채굴한 4.24캐럿의 옥타고날
컷 에메랄드 센터 스톤을 중심으로 총
18,744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백6개와 총 3.55캐럿의 테일러드 컷
다이아몬드 32개가 우아한 빛을 발하는
1936 화이트 골드 에메랄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프레드** 02-514-3721.

(왼쪽) 클래식함이 돋보이는 디자인에
아이코닉한 문패이즈가 매력적인 워치.
직경 40mm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을 매치한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4천3백47만원 **블랑팡**
02-3479-1833.
(오른쪽)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머더오브펠 다이얼을 매치했으며,
브레이슬릿과 루비 컬러로
완성했다. 아이코닉한 아라비아숫자
인덱스가 시선을 사로잡는 레인 드
네이플 8918 루비 6천5백만원대
브레게 02-6905-3571.



나폴리 여왕 카롤린 유리를 위해 브레게가 제작한 최초의 손목시계에서 영감받아 만든 레인 드 네이플 컬렉션 워치. 올해 메종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문페이즈 버전의 새로운 워치를 출시했다. 36.5×28.45mm 사이즈의 타원형 케이스에 화이트 머더오브펠 다이얼을 매치해 우아하게 완성했으며, 서브 다이얼은 메종 250주년을 기념하는 퀘드올로지 기요세로 장식했다. 케이스 백의 플래티넘 소재 로터에는 새롭게 선보인 뽀띠 트리아농 기요세를 섬세하게 새겼다. 문페이즈는 블루 어벤추린 글라스 플레이트에 머더오브펠로 장식해 몽환적인 밤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브레게만의 독창적인 우아함이 드러나는 레인 드 네이플 9935 7천9백만원대 **브레게** 02-6905-3571.



(왼쪽부터 차례대로) 브랜드의 유서 깊은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타임피스로 직경 30mm 문사인™ 골드 케이스에 태양광 패턴의 티트 레커 그린 다이얼을 매치했다. 베젤과 인덱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5천9백만원대 오메가 02-3467-8632. 전설적 디자이너 제럴드 젤타가 디자인한 럭셔리 스포츠 워치로, 직경 35mm 케이스로 새롭게 출시되었다. 인체 공학적 디자인과 섬세한 마감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 특징. 18K 5N 골드 소재 케이스에 독특한 그라드 패들 다이얼이 매력적인 오네니아 오토매틱 35 5천7백30만원대 IWC 1877-4315. 최초의 전자시계이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미드센츨리 모던 디자인 워치로, 엘비스의 히트 싱글 앨범 (Blue Suede Shoes)에서 영감받은 모델. 옐로 골드 컬러로 PVD 코팅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 매치한 딥 블루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는 벤츨라 워치 블루 1백46만원대 해밀턴 02-3277-0251.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18K 옐로 골드 소재의 비즈로 테두리를 장식한 5개의 드롭 모티브에 총 0.8캐럿의 77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눈부신 반짝임을 부여한 세렙 보행 빈티지 펜던트 1천만원대 부세론 02-6905-3322. 즐거운 순간을 축하하는 중국의 사자춤에서 영감받은 컬렉션의 펜던트로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와 루비, 옉크스로 완성한 미디엄 씨씨 펜던트 2천2백11만원. 둔황 벽화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컬렉션의 네크리스로 특유의 곡선미가 돋보이는 18K 로즈 골드 모티브에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세팅한 올루기든 네크리스 3천4백34만원 모두 키린 02-6905-3453.



(위부터 차례대로) 아이코닉한 발집 모양의 핑크 골드 모티브 3개 중 하나에 0.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비 드 쇼메 이어링 페어 4백만원대 **쇼메** 02-3213-2149.
변치 않는 마음의 매듭을 상징하는 티파니 노트 펜던트.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티파니** 1670-1837.



(왼쪽부터 차례대로) 옐로·핑크·화이트
골드의 3개 랑을 엮어 영원한 우정과
사랑을 의미하는 트리니티 컬렉션. 화이트
골드 링에만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드함을 부여한 트리니티
쿠션 링 라지 모델 2천9백만원대,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유대감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새로운 디자인의 옐로 골드
LOVE 언리미티드 브레이슬릿
1천4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1877-4326.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원형 모티브 가운데를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코코 크러쉬 싱글 이어링,
18K 베이지 골드 소재 C 모티브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포인트를 준 코코
크러쉬 싱글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080-805-9628.

(왼쪽부터)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테일에 여러 개의 작은 사비아
플레이트를 흘러내리듯 연결한 사비아
라라엿 네크리스 가격 미정 **포엘라토**
0030-8321-0441,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블루 아게이트로 이루어진
빈티지 알함브라 리버서를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중앙에 5.09캐럿 오벌 컷 루비를 세팅하고, 주변에는 화이트 다이아몬드 2.06캐럿을 세팅해 시선을 사로잡는 링 가격 미정 **그라프** 02-2150-2320.

(왼쪽부터) 세련된 마감과 미니멀한
미학의 대표 격인 패트리모니 셀프
와인딩의 36.5mm 사이즈 버전.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나이트 블루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장식으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4천8백20만원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주얼리처럼
연출 가능한 쿼츠 무브먼트의 마이클
리브르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직경 32.5mm 레드
골드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과 엘라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하고, 다이아몬드 베젤과
바 인덱스, 6시 방향의 문페이즈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세련된 우아함을
전하는 세레나데 루나 3천1백만원대
글라슈테 오리지널 02-3467-6426.



(왼쪽부터) 세련된 로즈 골드 소재 부채 모티브 중앙의 말라카이트 인서트를 다이아몬드로 둘러싸 반짝임을 부여한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1천4백60만원 **볼가리** 02-6105-2120.
옐로 골드 소재와 터퀴이즈로 완성한 나비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더한 투 버터플라이 펜던트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인감 없이 메시 소재로 완성해 투명함을 담았다. 물방울에서 영감을 받은 라인스톤 디테일과 꽃잎 모양의 알코가 특징인 토이 펌프스 가격 미정 **로에베** 02-3479-1785.



(왼쪽부터) 벨벳 소재로 아이코닉한
퀵팅 패턴을 구현하고, 넉넉한
사이즈와 수납력을 갖추었으며,
크로스 보디로 편하고 캐주얼한,
연출이 가능한 라지 톨링 백
가격 미정 **샤넬** 080-808-9628.
2025 겨울 컬렉션 백으로,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그린 페이턴트 사피아노
가족으로 포인트를 준 갤러리아 미니 백
가격 미정 **프라다** 02-3442-1831.

(위부터 차례대로) 아카이브에서
꺼내온 아이코닉한 실루엣에
부드러운 양가죽을 인트레치아토
기법으로 완성해 장인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캄파나 백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02-3438-7694,
블랙 스무스 카프 스킨과 블랙 스웨이드로
이루어진 세련된 실루엣의 스니커즈
가격 미정 **다울 맨** 02-3280-0104,
글로시한 카프 스킨에 지퍼 디테일을
더해 스타일라이시함을 겸비한 데비 슈즈
가격 미정 **페라가모** 02-3430-7854.



김고 푸른 수영장에서 영감받은 풀(Pool)
컬러와 건축적 실루엣, 왕실의 품격을
지닌 디자인으로 우아함 속 청량한
감성을 전하는 브리앙 미니 풀 백
9백38만원 **멜보** 02-3449-5909.

(왼쪽부터) 클래식한 실루엣에 블랙 비즈, 플로럴 자수 장식 및 메탈릭 V 로고, 앤티크 브라스 마감의 하드웨어 등으로 빈티지한 무드를 가미한 드베인 자수 스물 솔더백 6백30만원대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고급스러운 실크 퍼 소재가 따뜻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동시에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부여하는 올렌도 후디 가격 미정 **가브리엘라 허스트** 02-3438-6132.



2025 F/W 몽클레르 그레노블 컬렉션에 등장했던 스노우 문 부츠로, 메탈릭 실버 컬러를 적용해 개성 있는 무드 연출을 돕는다. 1백16만원 **몽클레르** 0030-8321-0794.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바르는 세럼으로 피부 본연의 광채와 매끄러움을 개선하는 더 세럼II,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드림즈 익스프레스 컬렉션의 새로운 패키지로 출시했다. 50ml 34만5천원 **클레드뽀 보떼** 080-564-7700, 오일처럼 촉촉하고 스틱처럼 간편하게 촉촉한 입술로 가꾸주는 홀리데이 시즌에만 만날 수 있는 립 오일 스틱, 슈가 크리스탈 립 오일 스틱 대줄 기프트 컬렉션 3g 3만8천원대 **백** 1644-3748, 조향사 프란시스 커징이 뉴욕에서 보낸 시간에서 영감받아 활기 넘치는 에너지와 감각적인 무드가 느껴지는 724 오 드 파뮌 70ml 37만6천원 **매종 프란시스커징** 1644-4490, 아이코닉함과 클래식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샤넬 N°5 향수. 이번 홀리데이에는 다섯 가지 삼벌로 구성된 별자리를 수놓은 패키지로 특별함을 더했다. N°5 오 드 백르랭 100ml 28만4천원 **샤넬 뷰티** 080-805-9638, 밝게 타오르는 장작불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무려 5개의 심지로 완성한 라지 캔들, 화이트 보디에 별이 가득 빛나는 듯한 금빛 반점을 흩뿌려 장식한 베리 라지 캔들 사뮈엘 1,500g 60만4천원, 캔들에 불을 붙이는 순간 열기에 의해 장식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금빛 펜던트 까류셀 33만2천원 모두 **딥터크** 02-3479-6049, 브랜드만의 발효 카멜리아 성분이 피부 노화 신호를 깨어해 피부 컨디션을 되찾아주는 저속 노화를 위한 얼티툰 세럼 50ml 18만원대 **시세이도** 080-564-7700, 2025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출시한 나스 라이트 리플렉팅 프리즈마틱 파우더, 10g 6만5천원대 **나스** 080-564-7700,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자드로 오 드 파뮌과 트래블 스프레이를 세트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는 디올 홀리데이 자드로 오 드 파뮌 세트 100ml+10ml 32만4천원 **디올 뷰티** 080-342-9500.



(왼쪽부터) 극적인 기후변화 속에서 탄생해 밀도 높은 과실 맛과 부드럽고 다층적인 감각을 선사하는 돔 페리뇽 빈티지 2015의 새로운 패키지 버전, 무라카미 다카시의 워트 있는 플라워 모티프로 장식해 특별함을 배가했다. 750ml 가격 미정 **돔 페리뇽** 02-2188-5100, 주얼리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디자인과 땡한 그린 컬러가 매력인 크리스털 소재의 생-루이 토미 샴페인 글라스 가격 미정 **에르메스** 02-542-6622, 섬세한 비블과 균형 잡힌 품미로 이름난 프랑스 샴페인 모엣 & 샹동 임페리얼 브루의 연말 리미티드 에디션 750ml 8만5천원 **모엣 & 샹동** 02-2188-5100, 에디터 선정인

인도네시아 섬 오디세이 with 아만(Aman)_2편_Bali

천 가지 얼굴을 지닌 나라에서 만나는 ‘신들의 섬’

● 앞으로 20년쯤 뒤면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와섬에 있는 현재의 자카르타가 아니라 보르네오섬 동갈리만탄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인구 과밀, 지반 침하,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여러 이유에서 거국적으로 진행되는 수도 이전 프로젝트다. 새 수도인 누산타라(Nusantara)는 옛 자와어로 현대 인도네시아의 뿌리로 여겨지는 마자파히트 왕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불렀던 이름이라고 하는데, ‘많은 섬들의 나라’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무려 1만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을 품고 있는 세계 최대 ‘군도의 나라’다운 명칭이다.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으로는 열다섯 번째 순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평면의 세계지도에서 인도네시아는 실제보다 작게 나타난다. 지도 제작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메르카토르 도법’을 따르면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과장되어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처럼 적도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원래보다 작은 크기로 투영되는 것이다(이에 반해 ‘메르카토르 도법’은 지도상의 모양이 실제와 다르지만 면적은 비교적 정확한 방법으로 통한다). 아주 오래전 만난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지명한 예술가 셰리 삼바(Chéri Samba)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1998년 FIFA 월드컵의 프랑스 국가대표 영웅 릴리앵 튀랑과 함께 아프리카의 실제 면적을 제대로 반영하는 ‘진짜 지도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던 기억이 난다.

●●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 사이에 흐르는 바다 덕분에 물리적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천 가지 얼굴’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다채로운 풍물과 문화를 지녔다. 당장 언어만 보더라도 발리어, 순다어, 마두라이 같은 주요 지역 언어가 25가지, 방언이 2백50여 가지나 될 정도다. ‘하나의 나라’라고 여겨지기에겐 살짝 억울하겠단 싶을 정도로 거대하고 다채로운 육해공 풍경! 지난가을, 필자는 실제보다 축소됐든 아니든 지도나 이미지로는 절대로 가늠하지 못할 이 나라의 광활함을, 비록 일부 지역이지만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을 다녀왔다. ‘아만정기’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국강의 팬덤을 자랑하는 리조트 브랜드 아만(Aman)이 자리한 인도네시아의 섬들을 둘러보는 여정이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아만의 36개 리조트 중 6개가 인도네시아에 자리한 덕분에 손조롭게 다닐 수 있던 코스다. 이 여정의 무대를 크게 나누자면 자와섬 동쪽에 있는 발리섬, 그리고 발리섬에서 비행기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술바와의 모요섬이다. 술바와에는 아만의 창립자인 인도네시아 출신 에이드리언 제차(Adrian Zecha, b. 1933)가 1993년 선보인 글램핑 사이트로 ‘평화로운 숲을 뜻하는 아만와나(Amanwana)’가 등지를 들고 있다. 발리섬을 보면 1989년 우뚝, 1991년 망기스에 아만다리(Amandari)와 아만킬라(Amankila)가 잇따라 문을 열었고, 2018년 덴파사르 공항 인근에 아만 누사두아 빌라(Aman Villas at Nusa Dua)가 개장했다. 아만이 하나의 섬에서 세 군데에 걸쳐 존재감을 뽐내내는 유일한 사례다.

●●● 그리고 여객기나 헬리콥터 같은 하늘길의 교통편을 제외하고도 발리와 술바와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이동 수단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낭만적인 숙소가 되어주는 ‘요트 호텔’ 아만다리(Amandira)가 있다. 인도네시아 전통 목선인 ‘피니시(Phinisi)’에 영감받아 만든 이 아름다운 요트는 2015년 첫 출항을 해 10주년을 맞이했다. 최소 3박 이상의 일정으로 전세를 내는 방식으로만 숙박할 수 있으며, 오로지 한 팀(최대 10명)의 손님만을 위해 승선하는 ‘우리만의 크루(항해사, 다이버, 셰프, 테라피스트 등 14~15명의 전문가)와 동행하게 된다. ‘평화롭고 융성한’이란 뜻을 지닌 아만다리를 타고 나서는 여정은 고객 맞춤형으로 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데, 그중에는 발리에서 플로레스해를 거쳐 술바와로 가거나, 반대로 술바와에서 발리로 가는 인기 루트도 있다. 유유자적 바다를 누비면서 텐트형 숙소들이 사이좋게 펼쳐진, 단 하나의 리조트만 위치한 고요하기 그지없는 섬에서 천혜의 자연 속 낯설의 감성을 촉박처럼 느낄 수 있는 아만와나를 비롯해 발리의 아만 리조트 세 곳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여정이다. 지난 11월호에 실린 1편(아만와나-아만다리)에 이어 같은 섬(발리)에 있지만 저마다의 특색과 주변 환경이 다른 아만다리, 아만킬라, 아만 누사두아 빌라를 소개한다.



발리를 여행하는 하나의 방법

어찌 보면 발리는 희한한 섬이다. “또 발리야?”라는 불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자주 찾는 여행지이고 그만큼 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수많은 여행자가 이 섬에서 ‘한 달 살기’를 하길 꿈꾼다. 혹은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는 듯한 인도네시아의 ‘보물 창고’를 하나씩 발견해가는 계기를 선사하는 관문 도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제는 ‘지상 낙원’이라는 수식어를 고수하기엔 워낙 상업화된 관광지라 ‘발리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다’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돌지만, 어쨌거나 발리를 빼놓고는 인도네시아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상징이 된 섬이라는 얘기가.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은 인도네시아의 섬들 가운데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독보적인 휴양지로 자리매김해온 발리만의 고유한 매력은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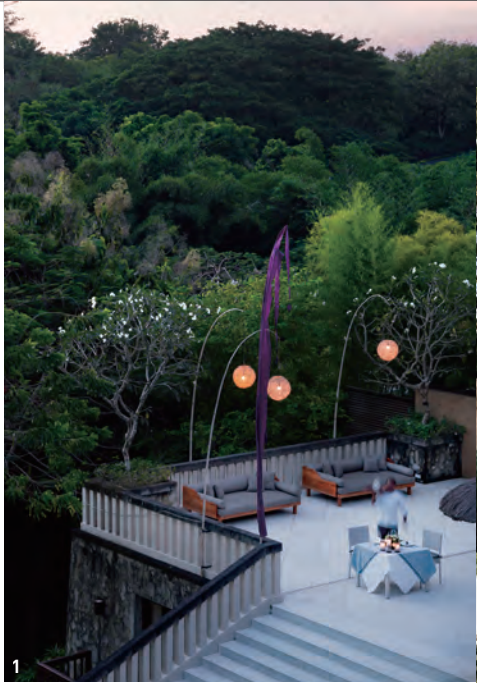
인도양과 태평양, 동서양을 넘나드는 바닷길 중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에서도 발리는 일찌감치 개발된 섬이다.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시절인 1924년 유럽에서는 이 열대의 화산섬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을 운항하기 시작했다.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비옥한 토양이 주는 풍요로운, 수려한 자연,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빛아진 다채롭고 풍부한 문화, 게다가 적도의 태양이 파사로움을 선사하지만(연평균 기온 27℃ 수준) 습도가 높지 않아 끈적거리지 않는 온화한 기후까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맡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1930년 발리를 배경으로 찍은 〈발라: 마지막 낙원〉이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기도 했고, 멕시코 작가 미겔 코바루비아스의 〈발리섬〉을 필두로 수많은 관광 서적이 나오기도 했다. 천리향 내음 만발한 발리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제상의 아침, ‘지상 낙원’이라는 수식어를 얻을 만큼 매혹적인 섬으로 각광받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를 잘 아는 대다수 외부인은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한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힌두 문화를 만들어낸 발리 주민들의 개방적이고 온화한 성향이 섬의 지속적인 인기엔 큰 몫을 했다고, 잘 알려졌듯 발리는 이슬람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과 달리 힌두 문화가 꽃핀 섬이다. 물론 ‘열대 우림 이슬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인도

네시아에는 대체로 타 종교를 과격하게 배제하지 않는 온건한 성향이 흐르지만, 발리의 힌두교 역시 토착 신앙과 중국에서 전파된 대승불교와 섞여 독자적인 종교 문화로 발전했다. 발리 주민의 9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데, 이들은 종교 이론보다는 일상에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행하거나 사원의 축제에 참여하고 춤, 음악, 회화 등의 예술 작업으로 신과 소통

1 인도네시아 술바와, 발리, 스파이스제도 등을 항해하는 아만의 ‘요트 호텔’ 아만다리의 모습. © 아만 2 발리는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다른 인도네시아 지역과 달리 힌두 문화의 의례가 일상에 녹아 있는 섬이다. 3 내년엔 발리에 들어설 유진 미술관 렌더링. © Andra Matin © Eugene Kangawa / EUGENE STUDIO © Eugene Museum in Bali

하는 식으로 ‘삶의 종교’에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발리 전역에 무려 2만여 개의 힌두교 사원이 있고, 어디를 가든 주민들이 하루 세 번 식사를 하기 전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쌀, 소금, 꽃, 담배, 돈 같은 것을 나무 이파리로 만든 작은 그릇에 넣고, 성수를 뿌린다. 발리가 ‘신들의 섬’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다.





아만 누사두아 빌라 Aman Villas at Nusa Dua

거의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선사하는 안식처

제주도 면적의 2.7배 정도 되는 발리는 1970년 인도네시아 군사정권의 정책적 결단으로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왔다. 그래서 타국의 여행자들이 주로 찾는 지역도 대개는 남쪽에 자리한다. 행정과 상업, 교육의 중심지인 덴파사르와 일찌감치 고급 리조트들이 들어선 누사두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핑의 메카'로 불리는 꾸따, 하얏트 고운 모래가 있는 사누르 등이 대표적이다. 덴파사르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술촌 우붓도 지도상으로 보면 중간쯤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에서 발리를 여행하는 이들 중에는 동네별로 숙소를 옮기다니며 다채로운 얼굴을 한 발리의 이모저모를 흡수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제주 여행을 할 때 애월 → 저지리 → 하도리를 돌며 한곳에 머물지 않듯, 묵는 식으로 말이다. 필자의 시작점은 누사두아였다. 덴파사르에 있는 응우라라이 국제공항과 가까운(대개 자동차로 15~20분 소요) 아만 누사두아 빌라는 말 그대로 독채형 프라이빗 빌라다. 울창한 녹음을 드린듯 정원 속 반듯한 지평의 느낌을 주는 대문으로 들어서면 7채의 빌라가 평온하게 펼쳐져 공원의 변잡함을 잊게 해준다. 아늑한 프라이버시를 지향하는 설계와 아만 특유의 고급스럽지만 소박하고도 편안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2층 구조로 이루어진 빌라(숙소)에는 유형에 따라 각자의 파빌리온(침실)이 4~6개 달려 있고,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공간(독채), 가족이나 커플끼리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 프라이빗 버블러와 셰프가 상시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녁에는 25m 길이의 프라이빗 풀 가장자리를 촛불로 장식해 낭만적인 디너를 즐길 수도 있다.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 누사두아 해변으로 나들이를 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소일거리다. 자동차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의 해변에 아만의 손님만을 위한 작지만 요긴한 전용 비치 클럽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해변에서의 '명패러기'를 비롯해 서핑, 패러세일링 같은 레포츠 말고도 쇼핑, 골프를 택할 수도 있다. 첫 숙소로 짐할 경우엔 시차 적응이나 비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본격적인 여정에 나설 심신의 준비를 갖추기에 안성맞춤인 안식처가 될 것이다.

주소 Nusa Dua, South Kuta, Bali, Indonesia
홈페이지 aman.com/villas/aman-villa-at-nusa-dua.com



아만다리 Amandari

발리의 예술혼과 어우러지는 정글의 기운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로운 영혼'이라는 뜻을 지닌 아만다리는 두 번째로 오래된 아만 리조트다. 우붓은 엄청난 교통 체증에 여행자들조차 바이크를 빌려서 타고 다니는 '오픈' 환경이 펼쳐질 정도로 붐비지만, 아만다리가 문을 연 1989년에만 해도 한산했다. 긴꼬리원숭이들이 사는 생태 공원을 비롯한 숲과 아름다운 계단식 논이 고요한 정취를 자아낼 뿐 외부인이 드물었던 마을이니 말이다. 빼어난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외딴곳에 '홀로움'의 미학을 추구할 수 있는 '헬스 리트리트' 개념의 리조트를 열어 당시 호텔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브랜디다운 행보다. 19세기 무렵부터 발리의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살았던 우붓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 서양의 아티스트들도 찾아온 예술촌으로 독자적 화풍을 지닌 '우붓 회화'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전통 춤이라든지 인형극 외양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을 밀도 높이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하다. 아용강 협곡에 위치한 아만다리는 '알랑알랑(Alang-Alang)'이라 불리는 갈대로

역은 초기지붕을 얹은 전통 건축양식을 최초로 반영한 리조트다. 지금 우붓은 번잡하지만, 고데와탄 마을에 자리한 아만다리는 다른 세상에 온 듯 평화롭기만 하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꾸준한 연대를 바탕으로 마을 아이들이 열심히 익힌 전통 춤을 감상할 수 있고, 현지 장인들이 만든 도자기와 목각 등 수공예품을 접할 수도 있다. 아만다리는 36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지만 낡았다기보다 좋은 와인처럼 잘 숙성됐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고아한 분위기를 뿜어내는데, 호주 출신 건축가 피터 멀러(Peter Muller)의 역작이다. 리조트 한가운데 놓인 야외 수영장은 열대 숲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전망을 끼고 있는데, 논에서 영감받아 만들었다는 발리 최초의 '인피니티 풀'이다. 30개의 스위트룸과 1채의 빌라가 독채 형식으로 펼쳐져 있는데, 마을 뷰, 정글 뷰 등 저마다 특색 있는 전망을 지녔으며, 공통적으로 높은 천고가 시원한 공간감과 세련된 느낌의 가구로 수놓은 객실 인테리어의 미감이 매우 빼어나다. 특히 침대에 나른하게 누워 울려다보면 시야에 들어오는 천장의 아름다운 패턴이나 전통 바틱 기법으로 만든 보관함까지 오감에 자그마한 '몰입'을 주는 세심한 감성이 돋보인다.

주소 Kedewatan, Ubud, Bali, Indonesia
홈페이지 amandari.com



아만킬라 Amankila

아공산의 정기와 동쪽 해안의 절경을 동시에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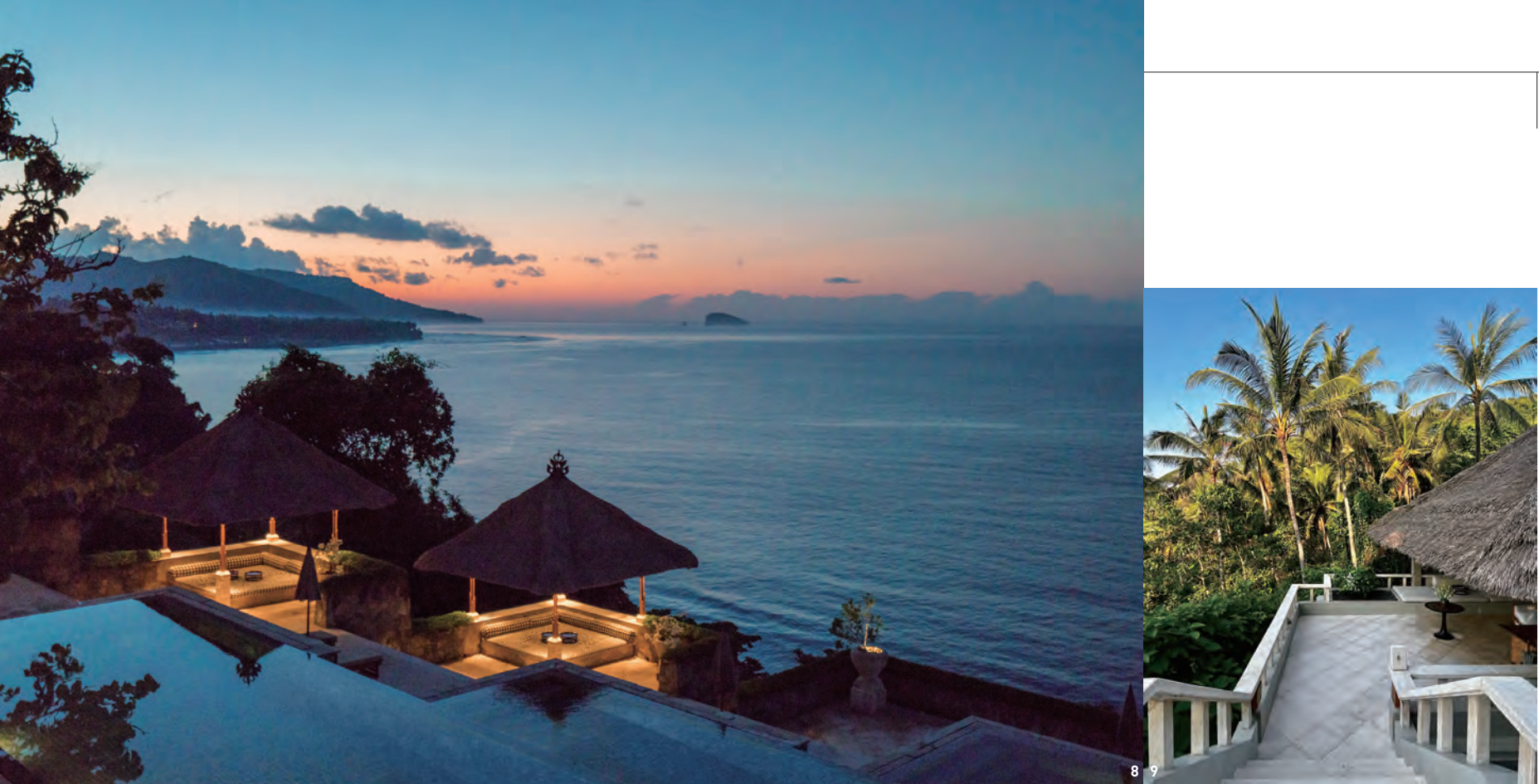
어쩌면 해안과 떨어진 협곡에 자리한 우붓을 선택한 아만다리의 사례보다 더 파격적인(?) 선택은 발리 동쪽 망기스에 우뚝 솟은 언덕에 들어선 아만킬라일지도 모르겠다.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로운 언덕'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만킬라는 발리의 다른 어떤 리조트와도 다른 매력적인 풍광을 품고 있다. 일단 발리에서 '상산'으로 추앙받는 아공산의 언덕 위에 자리해 한눈에 내려다보는 시원하기 그지없는 탁 트인 전망이 압권이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보면 롬복으로 향하는 질푸른 바다가 끝이 닿지 않을 듯 무한한 느낌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레스토랑, 수영장, 객실 등이 들어선 여러 건물이 각기 다른 높이에 있기에 저마다의 공간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매력도 다 다르다. 아만킬라에서 앙증맞은 카트인 '버기'를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도착하는 전용 비치 클럽은 살짝 어두운 색의 모래와 울이 곱게 나는 조약돌을 주울 수 있는 해변을 끼고 있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위풍당당 뽀는 크람빗 색조의 기둥들과 계단,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조용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우아한 아치의 건축적 장식 등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반도에 있는 아만조에



(Amanzoe)를 떠올리게 한다(연젠가 다시금 꼭 찾고 싶은 아만 리조트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만킬라와 아만조에는 둘 다 미국 출신의 건축가 에드 터틀(Ed Tuttle)의 작업이라 저도 모르게 느껴지는 특유의 분위기를 공유한다. 게다가 요새처럼 힘차게 높이 솟은 언덕 위에서 에게해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아만조에의 구도 역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태초의 송고한 미를 간직하듯 오롯이 버티고 있는 아만킬라의 그것과 닮은꼴이다. 한 건축가의 영감 속에서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이랄까. 필자는 마침 바다를 바라보고

8 동쪽으로 롬복을 향하는 질푸른 바다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아만킬라. 9 발리 동쪽 망기스에 있는 언덕 위에 자리한 아만킬라에는 가든 뷰, 혹은 오션 뷰를 품은 31개의 독채형 스위트가 있다. Photo by 고성연
10 그리스에 있는 아만조에와 마찬가지로 건축가 에드 터틀이 디자인을 맡은 아만킬라의 내부. ※ **8, 10** © 아만

있는 숙소에서 묵었다. 현관 앞 테라스에서 시선이 닿는 바다가 멀리에서 기분 좋게 일렁이고, 육조 옆 창문 너머로는 진녹색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을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적인 감성에 젖게 되는데, 그런 순간이면 아만다리를 건축한 피터 멀러처럼 지금은 고인이 된 에드 터틀의 손길이 빛어내는 또 다른 공간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게 느껴진다.
주소 Manggis, Karangasem, Bali, Indonesia
홈페이지 amankila.com



(왼쪽부터 차례대로) 서울을 테마로 한 스페셜 에디션, 프루티한 복숭아와 자두, 배 향이 어우러진 아로마가 특징이다. 빅브 클리코, 문의 02-2188-5100, 2001년부터 이어온 13개 빈티지의 1백50종 와인을 블렌딩해 완성한 깊이 있는 풍미. 레몬과 라임의 생동감에 풍부한 과실 향, 브리오슈 노트가 은은하게 이어진다. 그랑 퀴베 173 에디션 750ml, 40만원대 **크루그**, 문의 02-2188-5100, 1743년 창립 이후 77번째로 선보인 빈티지 샴페인으로, 진저브레드의 부드러운 아로마에 꿀과 포멜로의 산뜻한 산미가 조화를 이루며 긴 여운을 남긴다. 우아한 균형미가 돋보이는 그랑 빈티지 2016 750ml, 14만원대 **모엣 & 상동**, 문의 02-2188-5100, 신선한 절감과 미네랄이 느껴지는 청량한 마무리가 특징으로, 새우나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곁들인 도미 타르타르와도 잘 어울리는 블랑 드 블랑 750ml, 14만원대 **루이나**, 문의 02-2188-5100, 피노 누아의 구조감에 소량의 피노 뮌나에를 더해 부드럽게 퍼지는 과일 향이 특징이다. 허니와 진한 크림, 누가, 감초 노트가 이어지는 피나시가 매력적인 페리에 주에 벨에포크 2015 750ml, 30만원대 **페리에 주에**, 문의 02-3466-5700, 약 12년간의 셀러 숙성을 거쳐 완성했으며 사도네이의 우아한 미네랄 향에 라즈베리, 무화과, 딸기, 체리의 붉은 과실 아로마가 조화를 이룬다. 풍부한 보디감과 크림미한 절감의 로제 빈티지 2009 750ml, 60만원대 **돔 페리뇽**, 문의 02-2188-5100, 에디터 **신영임**



Holiday Bubbles

경쾌하게 피어오르는 버블이 테이블 위에 환희를 채운다. 클래식한 퀴베부터 특별한 해를 담아낸 품미까지, 연말의 기쁨을 더욱 빛내줄 샴페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러블리한 무드를
배가하는 'Holiday
Cheers Dulcis'
벨 오너먼트
19만9천원
스와로브스키, 문의
02-1522-9065



크리스털 손잡이와
다이아몬드 모티브의
밀 누이 플루티시모
2개×1세트,
1백85만원 **바카라**,
문의 02-3448-3778



플로럴 패턴과 골드 디테일이
어우러진 캔들 홀더 가격 미정
에트로 홀, 문의 02-3446-1321



포즈를 취하는 펠디와 레드 바스가 담긴 디아블로 드 까르띠에 스노 글로브 2백만원대 **까르띠에**, 문의 1877-4328



소스나 디저트를 담을 수 있어
테이블 포인트 아이템으로 제격인
스타 라메킨 2개×1세트, 8만8
천원 **르크루제**, 문의 1877-4281



움직이는 캐시미어 원사를 입체적으로
재해석한 패턴이 돋보이는 분티 아
말리아 커피 컵 & 컵받침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골드 도금 메탈 소재의 아틀라주 컬렉션
디너 세트 나이프 & 포크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눈 덮인 크리스마스 트리가
연상되는 달라이트 캔디
박스 16만5천원 **알레시**,
문의 02-6299-5684



웨이블 실루엣의 토프 & 러스트 컬러
미디엄 사이즈 세라믹 센터피스
60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연말의 설렘을 배가해줄 감각적인 아이템,
촛불의 반짝임과 화려한 오브제로 완성한 겨울 테이블.



소나무의 신선한 솔잎과 송진 향, 시더트리, 파슬리 노트가 은은하게 어우러진
사쟁(Sapin) 캔들 190g, 12만9천원 **딤텍코**, 문의 02-3446-7494

에디터 신영임



구찌 뷰티 루즈 아 레브르 매트 #509 겨울 메이크업 하면 역시 딥 레드 립스틱. 높은 밀착력과 발색력, 크리미한 텍스처가 립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려준다. 3.5g 6만3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김하얀



맥 대출새도우 글리터 #라스트 댄스 핑크 펄의 피치 베이지 컬러 아이섀도. 펄 제품임에도 가루가 날리거나 주름에 끼지 않고 부드럽게 밀착되어 애코살 연출에 최적이다. 1g 4만5천원. 문의 1644-3748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아우구스티누스 바터 더 립밤 피마자 씨 오일, 시어버터, 립 리뉴얼 콤플렉스 등으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부드럽고 촉촉한 입술 케어가 가능하다. 4g 6만5천원. 문의 02-3438-6065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Editor's Pick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하는 지금,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위한 스킨케어부터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는 캔들, 겨울 무드를 더하는 메이크업까지. 이달의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프라다 뷰티 핸드크림 시어버터와 나이아신아마이드, 여기에 큐티클을 보호하고 손톱 갈라짐을 완화하는 비오틴을 함유해 손끝부터 피붓결까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50ml 8만원. 문의 080-835-0097 _by 에디터 김하얀



오에라 타임-리트릿 크림 가벼운 텍스처지만 충분한 수분감을 선사하며 유분감이 많지 않아 유·수분 밸런스를 되찾는 데 효과 만점. 40ml 47만원. 문의 1800-5700 _by 에디터 성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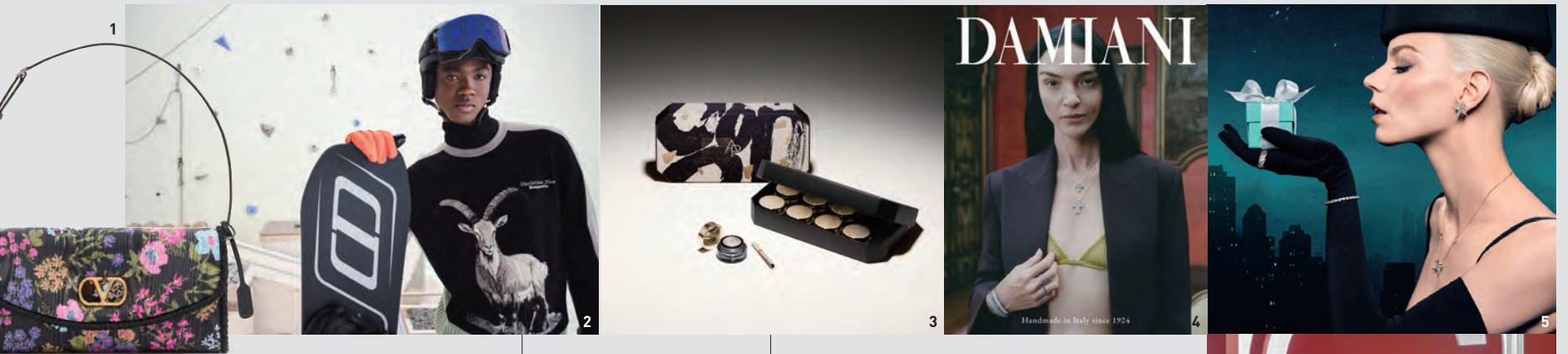


샤넬 레 사인 드 샤넬 하우스를 대표하는 심벌인 사자, 까멜리아, 꼬메트, 밀, 진주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부드러운 새틴 피니시에 핑크와 화이트 펄로 얼굴을 화사하게 연출해준다. 14g 8만7천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신정임

로에베 센티드 캔들 토마토 리프 열매를 맺기 전, 줄기의 프레시하고 그리너리한 향이 매력적인 캔들. 잘 익은 토마토 컬러의 캔들 속에는 올리데이 오브제로도 제격이다. 170g 14만7천원. 문의 02-3479-1484 _by 에디터 신정임

다이슨코리아 NEW 다이슨 에어랩 코안다2x™ 멀티 스타일러 앤 드라이어 엠버 실크 팩스트 드라이어 2x 최근 추가된 영킹 방지 빗과 무려 6개의 노즐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나의 기기로 끝낼 수 있는 무척의 헤어 스타일링 기기. 87만9천원. 문의 1588-4253 _by 에디터 성정민

※ 상영인(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각성, 신정민(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지, 박현성



1 발렌티노 가라바니 드베인 백 발렌티노 가라바니가 아이코닉한 베인 백을 재해석한 '발렌티노 가라바니 드베인 백'을 출시했다.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크로스 보디, 숄더백 등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 문의 02-2015-4655

2 디올 맨 2026 디올 봄 라이프스타일 캠페인 컬렉션 디올에서 스키 세계를 모티브로 한 라이프스타일 캠페인 컬렉션을 선보였다. 아웃도어 문화와 럭셔리를 조화롭게 해석한 블레이저, 터틀넥을 카고 팬츠 또는 스키 팬츠와 매치한 록과 윈드브레이커, 매신저 백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80-0104

3 AP 뷰티 홀리데이 나이트 엘릭시어 아모레퍼시픽의 하이엔드 스킨케어 브랜드 에이피 뷰티가 연말을 맞아 홀리데이 캠페인을 전개하며 한정판으로 홀리데이 나이트 엘릭시어를 출시했다. 강렬한 먹색으로 도시의 밤을 그려내는 과감한 화풍의 박지은 작가와의 협업 패키지를 선보였다. 프라이미 리저브 크림의 유효 성분을 4배 이상 응축시켜 강력한 탄력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80-020-5757

4 다미아니 홀리데이 캠페인 공개 이탈리아 하이주얼리 메종 다미아니가 브랜드의 예술적 비전과 미학을 새롭게 해석한 홀리데이 캠페인을 공개했다. 아트 디렉터 크리스토퍼 시몬즈와 포토그래퍼 스테프 미첼의 협업으로 완성했으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슈퍼모델 마리아카를라 보스코노와 글로벌 앰배서더 아이네(N)이 다미아니의 다채로운 컬렉션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문의 02-515-1924

5 티파니 (Love is a Gift) 캠페인 1백88년 전통의 하이주얼리 하우스 티파니가 앰배서더 안야 테일러-조이가 참여한 2025 홀리데이 캠페인 (Love is a Gift)을 공개했다. 이번 홀리데이 영상 캠페인은 사랑은 연인 간의 로맨스, 가족 간의 애정,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랑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며 '함께하



는 사랑도, 나를 위한 사랑도, 사랑은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문의 1670-1837

6 키린 2025 파인 주얼리 전시 케어링 그룹 산하 파인 주얼리 하우스 키린이 서울 조선 팰리스에서 성황리에 열린 '미라클 가든' 프라이빗 이벤트에서 2025년 파인 주얼리를 전시했다. 이번 전시에서 대표 컬렉션인 울루 패어리·씨씨·친친·뱀부 라인을 선보이며, 새롭게 출시한 울루 타이 네크리스도 공개했다. 문의 02-6905-3453

7 쇼파드 해피 하트 컬렉션 새로운 네크리스 출시 쇼파드의 대표 컬렉션인 해피 하트 컬렉션에 27지 새로운 타이 네크리스를 추가로 출시했다. 18K 로즈 골드로 제작했으며, 머더오브펠 또는 오닉스 하트 모티프가 특징이다. 슬라이딩 방식의 하트 모티브로 길이 조절 가능해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6905-3390

8 지방시 뷰티 홀리데이 컬렉션 지방시 뷰티에서 빛나는 파리의 밤을 모티브로 골드와 실버를 활용한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였다. 아이코닉한 프리즘 리브르 루스 파우더, 르 9 드 지방시 아이섀도 팔레트 등의 제품을 스페셜 한정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1-9500

9 셀린느 소프트 트리옹프 베사체 셀린느에서 2026 봄 컬렉션으로 소프트 트리옹프 베사체를 출시했다. 하우스의 상징적인 트리옹프 메달 장식을 소형화해 재해석한 자석 잠금장치로 선보였다. 소운-백(sewn-back) 공법을 적용해 가죽 본연의 부드러움을 살렸으며,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한다. 문의 1577-8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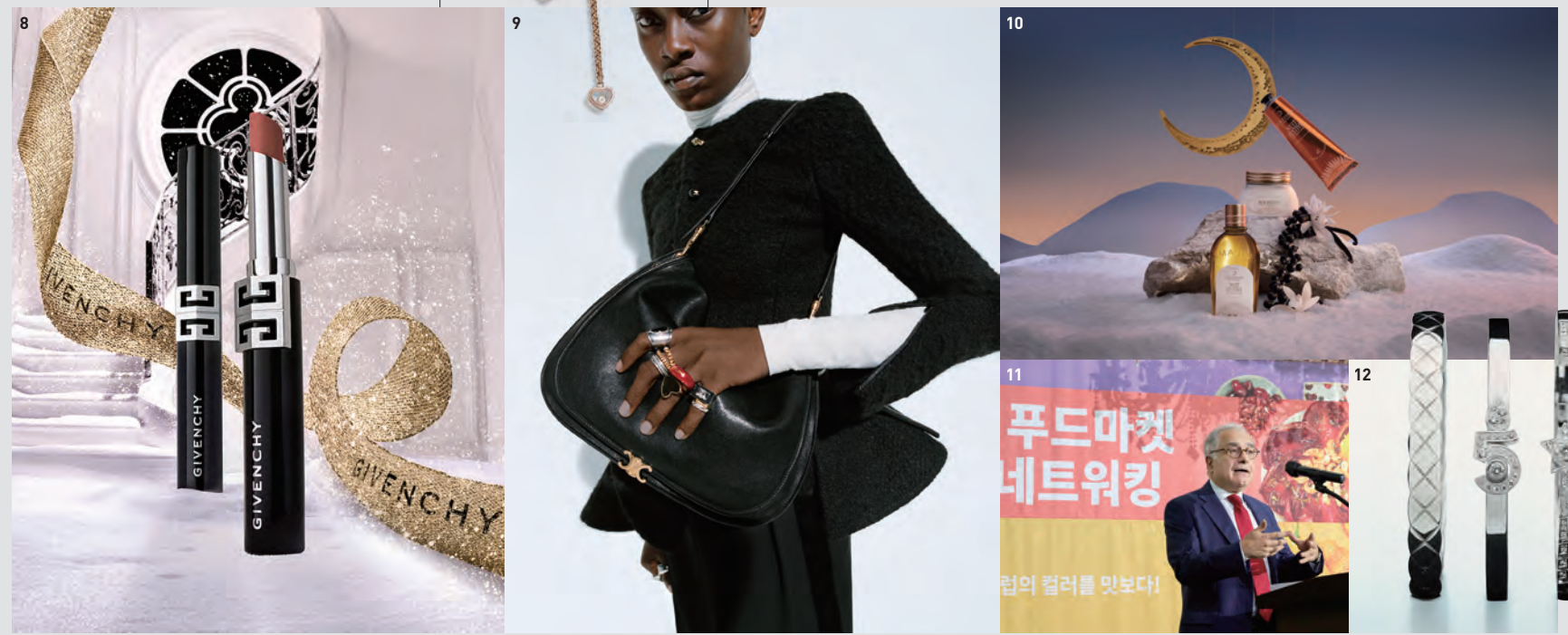
10 록시땅 2025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렉션 출시 프로방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록시땅에서 2025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렉션을 출시했다. 오트-프로방스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 새벽부터



황혼까지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프로방스의 빛을 좇는 여정에서 느껴지는 축제 무드를 감각적인 아트워크와 패키지로 표현했다. 문의 02-2054-0500

11 EU(유럽연합) EU 푸드 마켓 넷워킹 행사 유럽연합(EU)에서 지난 11월 25일 서울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에서 유럽의 고품질 식품을 홍보 캠페인 '진짜 유럽의 걸러를 맛보다'의 일환으로 'EU 푸드 마켓 넷워킹(EU Food Market & Networking)'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외식업 관계자, 미디어, 기관 파트너가 참석해 유럽 농식품의 맛, 다양성, 품질 기준을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한-EU 간 농식품 교류 강화와 상호 협력 확대를 향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문의 <https://colours-by-europe.campaign.europa.eu/ko>

12 샤넬 파인 주얼리 홀리데이 기프트 제안 샤넬 파인 주얼리에서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기프트를 제안한다. 쥘링 모티브로 제작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과 꼬메트 브레이슬릿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8 Givenchy lipstick and perfume advertisement.

9 Givenchy perfume advertisement.

10 Givenchy perfume advertisement.

11 Givenchy perfume advertisement.

12 Givenchy perfume advertisement.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AND BRACELETS IN BEIGE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CHANEL

FINE JEWELRY